

“빛, 색, 감각이 교차하는 시간”...그로스만 ‘비포 더 라이트’展

뉴스1 제공 | 2025. 5. 23. 10:08

독일의 대표적인 추상화가 헬렌 B. 그로스만의 개인전 ‘비포 더 라이트’(Before the Light, 빛 앞에서)가 6월 4일부터 28일까지 김리아갤러리에서 개최된다.



Helene B. Grossmann, SPRING, Acrylic on canvas, 140×140cm, 2016. 김리아갤러리 제공

이번 전시는 그로스만이 한국에서 갖는 두 번째 개인이다. 작가 특유의 빛과 색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한층 깊이 있게 선보인다. ‘빛을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작가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마주한 빛과 색채의 흔적을 따라가는 길에 초점을 맞춘다.

전시에서는 2010~2022년에 제작된 회화 22점이 소개된다. 하늘과 지평선에서 영감을 받은 색채는 산의 능선이나 일렁이는 태양 빛을 연상시키며, 색의 흐름 속에서 빛의 스펙트럼을 체험하게 한다. 관객은 그로스만이 추적해 온 빛의 여정을 따라가며, 색과 빛이 만들어내는 깊이와 감각의 교감을 경험할 수 있다.

작가는 빛을 단지 회화의 구성 요소가 아닌, 관람객이 ‘느끼고 마주하는 존재’로 바라본다. 그의 회화는 단순한 시각적 표현을 넘어, 작품을 통해 빛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도록 유도한다. 색과 빛은 어둠과 밝음을 넘나들며 감각적인 몰입의 순간을 끌어낸다.

그로스만은 “내가 회화에서 관객들이 무언가를 연상하도록 만들면, 그 다음은 관객의 차례가 시작된다”라고 말한다.

이 여정은 시각을 넘어 몸과 마음으로 확장된다. 그로스만은 전시 기간 중 한국을 직접 방문해 관람객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빛을 느끼는’ 체험으로 기획된 ‘싱잉볼 명상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회화와 명상이 결합된 이 경험은 관람객이 작품 너머의 감각을 더욱 섬세하게 인식하도록 이끈다.

빛과 색, 감각이 교차하는 이 시간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공간과 존재를 사유하는 체험으로 이어진다. 그로스만의 작품은 명상과 결합되어 관람객과 예술의 의미를 함께 탐구하는 진정성 있는 교감을 선사한다.

[출처: Money S]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52310088069157>